

“누군가 여성들과 함께 말을 많이 나누는 사람은 자신을 파괴시키고, 분명히 율법공부를 게을리 하는 사람이거나 심지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흔히 하는 사회에서 여성들과 자연스레 일상적 관계를 갖는 예수의 모습은 가히 혁명적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유도하는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요한복음은 전한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는 제자들에게 그 사건은 하나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음을..(요한 4,27 ; ”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여자와 말을 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유태인들의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남자들은 밖으로 나가야 하고, 남자들과의 사이에서 서로 배워야 하고, 여자들은 집안에 머물면서 유일하게 배워야 할 의무는 옷감 짓는 일이 아니던가?”

여자는 언제나 종교교육에서 배제(제외)되어 있었다. (신명기 11,19 : ”이것을 너희 자손(유태인들에게는 오직 아들들만을 가리킨다)들에게 깨우쳐 주어라”) 라고 하느님의 말씀을 언급한 성경에 쓰인 사실을 가지고, 랍비들은 여자들을 종교교육에서 제외시키는 일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만일 진실로 신명기가 하느님의 말씀이었다면 “너희들의 아들뿐 아니라 딸들에게도 깨우쳐 주어라”라고 분명히 여자들을 포함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랍비들)은 여자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었다.

“여자들에게 그 귀한 율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차라리 율법서가 불에 태워지는 것이 더 낫다고 율법학자들이 말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오로지 정의로웠던 여자,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단 한명의 여자 말고는 그 어떤 여자라도 결코 말을 나누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창 18,1-15 :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웃었지만 겹을 먹고는 자신이 웃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순진한 사라의 거짓말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쾌하셨던 그때 말고는 하느님조차 그 어느 여자라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히브리 여자들이 철저히 소외된 계급에 머물게 된 사실은 비단 종교의 테두리만은 아니다. 그녀들은 태어나는 순간 그 즉시로부터 통째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전반의 율법적 구조 전부 때문이다. (레위기 12,5 :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으면(남자아이보다 두 배의 기간 동안 부정하다고 책임(탓)을 부여한다.) 육십육 일간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구나 여자는 신체적 특성상 영속적으로 살아야만 하는 생리적 구조자체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동정심을 받지 못할 인간으로 간주하여 하느님과 더 떨어진 이유라는 주장이다.

사실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은 여자아이(딸)들의 탄생은 기쁨이나 즐거움의 축하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제외시킨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남자들이 서로 만나 주고받는 인사로 “너에게 운이 좋기를.... 그리고 아들들을 낳게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이다. 하지만 유태인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냉대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가져다준다. 구약성경 작가의 서술에서 그 비통함과 서글픔을 표현한 글을 보면 (집회서 42,9-10 : 딸은 아비에게 남모르는 근심거리여서 딸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적도 많다. 딸이 젊은 때는 시집을 못 갈까 걱정이고 시집을 가면, 소박을 맞을까 근심이다. 처녀 때는 혹시 유혹에 빠질까 걱정, 출가 전

에 아기를 가질까 걱정, 시집가서도 자식을 못 낳을까 근심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 생각(사고)들은 탈무드의 말들 속에서도 확인된다.; “이 세상은 남자도 여자도 존재(필요하다고 서술함)해야 되지만,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행복하고, 딸을 가진 부모들은 참으로 불행하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 비전으로써 각각의 남성들은 매일 세 번 씩이나 다음과 같은 : “나를 무신론자로도 여자로도 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속한 남자로도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자비로우신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라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여성에 대한 배척이 하나의 문화화 된다.

따라서 딸을 둔 가족들은 또다시 딸이 생길까봐 부모들은 큰 두려움을 가져야만 했고, 또다시 딸이 태어날 경우 막 낳은 갓난아기를 밖으로 꺼내(낳는다는 의미도 없다)즉시 마을 밖으로 버리는(동물의 먹이가 되도록) 습관이 된 전통이 있었다.(에제키엘16,5 : “너를 애처롭게 보아 이런 친질을 베풀어 줄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가엾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에 떨어지던 날, 너는 들에 내버린 개구멍받이 신세였다.”)

그러므로 설명되어진바 문화의 맥락에서 볼 때 여성이 복음서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함을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거의 모두 부정적 인물들로 드러나지만, 복음사가가 권력에 관련되어 그리게 된 두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이다 : 그것은 권력을 휘둘러 왕과 간통하고, 살인자가 되는 헤로디아테스와, 자기 자녀들을 위해 권력을 염원하는 제베대오의 두 아들의 야심 많은 어머니뿐이다.

복음서에서는 여자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앞서 주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물들로 소개된다. : 예수의 어머니의 찬란하고도 위대함은 주님을 낳으신 그 자체가 아니고, 자신의 아들의 충실한 제자가 될 줄을 알았던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그 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첫 번째 증인이 된 막달라의 여자 마리아까지 이른다.

히브리 언어 바탕의 남성주의적 사회문화 속에는 <여제자>라고 지칭한 명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시대의 전통과 풍속의 가르침은 : “예를 들어 스승들의 제자는 자신의 자매와 딸, 아내까지, 그 어떤 여자라도 길에서는 말을 하지 말도록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더 이상 남자도 여자도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 (갈라디아3,28 :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녀의 차별은 없어지고 오직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인정받아야만할 인간의 인격만이 존재할 뿐임을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과 윤리가 정했던 율법을 무시했으며, 또한 여러 질병과 악령을 치유 받은 여자들을 놀랍게도 제자로 삼기까지 하셨다. (루카8,1-3 : 그 뒤 예수께서는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열두 제자도 같이 따라 다녔다. 또 악령이나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나온 여자들도 따라 다녔는데 그들 중에는 일곱 마귀가 나간 막달라 여자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신하 쿠자의 아내인 요안나,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자를 비롯하여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의 일행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복음서들 안에서는 여자들이야말로 주님의 공적행위에 거의 주인공으로 나타난다.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놀랍게도 그토록 중대한 하늘나라의 계시를 알리게 된 첫 번째의 사람은 가장 더럽고 추한, 간음자에 간주되었던 적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이하의 이방인으로 간주된 사마리아 여자였던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주님께서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간청하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유일하게 당신(예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의 행동이다.(마르코 14,9 ;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남성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들어 높이질 때는 모두 사라지고 죽음의 순간까지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다.(마르코 15,40-41 : 또 여자들도 먼 데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따라다니며 예수께 시중들던 여자들이다. 그 밖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

복음사가들은 여자들이 예수를 따라갔을 뿐 아니라 심지어 끊임없이 시중들던 인물들이었다고 증언한다. 반면에 남성제자들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

그 당시의(칠 단계로 조성된 천국) 종교적 개념은 “하느님은 도무지 도달이 불가능한 멀고 먼 빛 속에 살고계신다.”고 생각했다.

복음에서는 그 도달할 수 없는 최고 층차에 계신 하느님께 시중들기 위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일한 존재는 천사들뿐이었다. (마르코1,13 :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여자들이다. 복음사가들에 의하면 여자들은 남자들과 똑같은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도 더 높은 천사가 하던 일의 역할까지 맡는다. 실제적으로 천사들만 유일하게 하느님을 알렸던 그 행위를 이제는 복음 안에서 여자들의 특권이 된다. 주님의 천사가 여자들에게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도록 재촉한다. (마태오28,7-8 :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뵈게 될 것이요.’하고 알려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여자들은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갔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여자는 죄와 죽음의 원인(집회서 25,24: 죄는 여자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죽음도 본시 여자 때문이다)이 된 상황이 바뀌어 여자야말로 생명의 부활에 대한 승리를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다. (요한 20,18 : 막달라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뵈는 일과 자기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전하였다.)